

5월 17일(월) / 시 34-36

▶ **내용요약** :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위협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다윗은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목숨을 건졌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당시 마음을 담은 찬송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35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과 싸우시기를 간구했다. 또한 자신을 향한 그들의 핍박과 조롱을 아뢰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자신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36편 또한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36편)
 “하나님이여 주의 ()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 **생각하기** : 시대는 다르지만, 시편기자들이 겪은 삶의 희로애락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가 지금 우리에게도 큰 공감이 되는 것이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주실 것이다.

5월 20일(목) / 시 73-75

▶ **내용요약** :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서 제 3권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시편기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 깊은 고통에 빠졌으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우매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 74편은 아삽의 교훈이다. 이는 성전파괴 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드린 기도였다. 시편기자는 버림받은 처지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들의 왕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이다. 시편기자는 오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아굽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을 고백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이라”
 ▶ **생각하기** :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5월 23일(일) / 시 107-108

▶ **내용요약** : 시편 107편은 시편 제 5권의 첫 번째 시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요청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처럼 시편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또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로 인해 시편기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다.

5월 18일(화) / 시 42-45

▶ **내용요약** :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시편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영적 갈증을 표현한 것이었다. 43편은 개인의 탄식시이다. 시편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회복의 날을 기대했다. 44편도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시편기자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고백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이러한 소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시편기자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45편에서 시편기자는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높이며 신부에게 온전한 순종을 권고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기대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42편)
 “하나님이여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생각하기** :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기를 원하신다.

5월 21일(금) / 시 88-89

▶ **내용요약** :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이다. 시편기자는 자신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다. 89편은 에단의 교훈이자 탄식시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했다. 하지만 다윗왕조의 몰락과 하나님의 외면은 시편기자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로 인해 시편기자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88편)
 “나의 ()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 **생각하기** :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복된 것도 없다. 물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이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도 더 높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과 긍휼을 간절히 요청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또한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밟으시고 승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5월 19일(수) / 시 49-51

▶ **내용요약** :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지혜시이다. 시편기자는 재물이나 지혜, 그 어떤 능력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경고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고 생명임을 교훈했다. 50편은 아삽의 지혜시이다. 시편기자는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묘사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재물과 악인의 삶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감사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역설했다. 51편은 다윗의 탄식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인자와 긍휼을 간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길 기도하며 기대했다. 이러한 그의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찬송으로 이어졌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라”
 ▶ **생각하기** :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해주는 것은 못한다. 시편기자의 고백과 같이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에만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5월 22일(토) / 시 90-93

▶ **내용요약** : 시편 90편은 시편 제 4권의 시작이자 모세의 기도이다. 시편기자는 광대하신 하나님과 티끌 같은 인생을 비교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길 간구했다. 91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평안과 안전함에 대한 노래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이다. 시편기자는 원수들이 보용 받는 것과 의인의 번성함을 목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93편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다. 시편기자는 그분의 보좌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임을 고백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93편)
 “높이 계신 여호와와 ()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 **생각하기** :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확실한 안전과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자.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108편)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을 깨우리로다”
 ▶ **생각하기** :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 가운데에서,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덜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